



삼성증권 김태현 광주지점장은 삼성전자와 팅크웨어를 추천했다. 김 지점장은 삼성전자를 추천한 이유로 모바일 D램과 S램을 하나로 통합한 '윈 D램'을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반도체 D램 강세로 4분기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팅크웨어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내 1위의 내비게이션 전문업체로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내비게이션 시장의 성장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설명했다.

## '윈 D램' 개발 새 수익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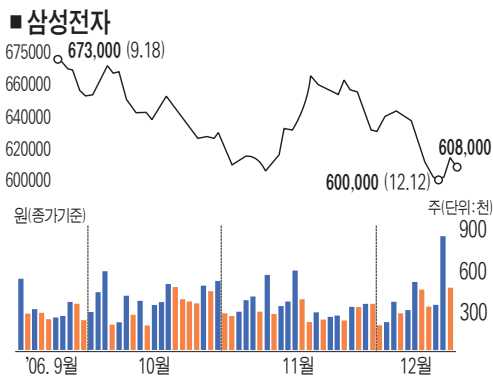
## 내비게이션 성장 최대 수혜주

### ■ 삼성전자

자타가 공인하는 IT부문의 글로벌 선두기업.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서 35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력제품은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PDP·LCD의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 등 3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경기부진에도 반도체 부문의 실적개선과 LCD 부문의 수출호조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D램의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DDR 가격과 국내 고가의 DMB폰 매출비중 확대에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의 회로면적과 전력소비를 각각 50%와 30%씩 줄일 수 있는 512Mb의 윈 D램 개발에 성공하는 등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를 겨냥해 60달러 이하의 저가 휴대폰 비중을 10~15% 확대하는 동시에 고가의 프리미엄 전라도 병행함으로써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9년만에 찾아온 원화강세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 지적도 있다. 현대증권은 환율 리스크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펀더멘털 개선은 미지수라며 삼성 모멘텀을 찾기에는 4분기 실적결과와 내년 1월말 윈도 비스타 컨슈머 버전 출시이후 D램 수요 동향이 파악되기까지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술적으로는 2002년 이후 줄곧 지켜온 월봉상 20일선이 있는 60만원선 지지여부가 관건이다. 과거 주가밴드로 볼때 58~60만원이 바닥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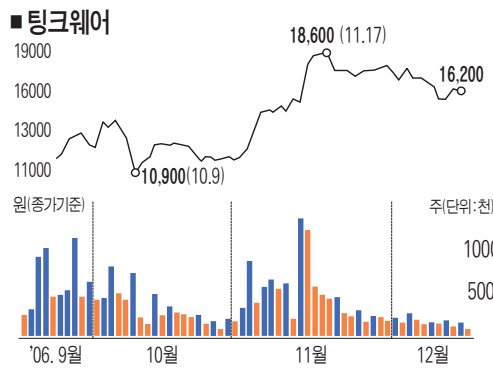
### ■ 팅크웨어

차량용 내비게이션시장 업계 1위 업체로 올해 5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437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100% 이상 성장한 850억~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 1위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디지털 맵의 정확성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아이나비' 브랜드로 출시되는 이 회사의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노하우가 핵심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지국이나 GPS로부터 특정장소의 도형정보를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지도를 직접 그릴 수 있는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장성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국내 내비게이션시장이 커져 대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할 경우 MP3산업에서 보듯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



또 운전중 DMB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휴대폰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한 이 업체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 내비게이션 시장은 차량철수와 함께 성장되는 출고전시장(비포마켓)과 출고후 따로 장착하는 출고후시장(애프터마켓) 가운데 어느 쪽 시장이 더 우위를 점할 것이냐에 따라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는데 출고후시장이 우위를 점할 경우 팅크웨어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중은행 가산금리 인상

# 주택대출 이자 '눈덩이'

양도소득 예금증서(CD)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강화한 데 이어 신규 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마저 인상하면 소비자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1%포인트를 인상한다.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75~6.75%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CD금리 변동이 없으면 다음주에는 연 5.85~6.85%로 오르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산출한다. 예컨대 국민은행은 지난주 14일 CD 금리인 연 4.74%에 가산금리 2.01%포인트를 더해 기본 금리로 6.75%를 산출했다. 10월말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38~6.58%였던 점을 감안할 때 다음 주에 가산금리까지 인상하면 두달여 만에 최저 금리가 0.47%포인트나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두달여만에 74만원 늘어난다. 물론 다음주에 CD 금리가 또 오를 경우 대출 금리는 그만큼 추가 인상되고 이자 부담도 더 커지게 된다.

에 다른 은행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CD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예전에 비해 대출 금리를 더욱 큰 폭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리 인상이 CD금리 상승과 우대금리 축소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제는 가산금리 인상에 따라 추가 상승 요인이 생긴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콜금리가 5차례 인상됐지만 은행들이 경쟁 때문에 대출 금리에 제대로 반영을 안했다"며 "이제는 이런 출혈 경쟁을 자제하면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급격한 금리 인상 → 부동산 거품 붕괴

## 충격 최소화해야"

### 금융연구원 주장

경기하락기에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수 있어 점진적인 금리조정으로 주택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강종선 선임연구원은 17일 '가계금융 부실 억제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은 2001년 10% 이상, 2002년 20% 이상 상승했으며 올해에도 10%가 넘는 이상 급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주택시

장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과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증정으로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계의 대출상환능력 저하와 향후 국내 경기의 둔화 가능성은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의 선진국에서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가 금융위기를 유발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금리인상과 경기 하락은 주택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필뉴스

### 아파트 버블 '위기의 징후'

### LG경제연구원 분석

한국경제가 앞으로 위기를 겪게 된다면 투자와 소비의 구조적 부진에 따른 만성적 경제활력 둔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가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없는지 분석한 결과 앞으로는 위기상황이 경제전역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올해 말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버블과 이에 따른 가계 부채 급증이라고 지적했다.



### TV와 PC를 하나로

LG전자가 17일 국내 최초로 출시한 PC와 디지털 TV 일체형인 'TVPC 시리즈' 기능에 대해 한 홍보도우미가 설명하고 있다. 'TVPC 시리즈'는 TV와 PC를 하나로 합친 개념으로 사용자들은 TV를 시청하면서 인터넷 접속과 문서작성 등 다양한 PC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연필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코셋	2007년 분야별 정규직 채용 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62-602-7765
삼성정보문화개발(주)	전산실 프로그래머 모집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2/20	062-222-6626
(주)리테시스트	경기 사무일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22	010-9885-1111
(주)인정보기술	PHP 신규 개발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376-8644
(주)위니	기술연구소 연구원 및 가스안전관리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1-362-0789
(주)유진주류	현대백화점 수입 주류 판매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22	062-573-4600
(주)달고리아	화장품 영업/총무관리/웹디자인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2/23	02-565-0080
(주)오픈테크놀로지	디자인 업무 프로그래머 모집	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23	062-971-7119
동화산기(주)	기계설계/생산관리/기술영업/총무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23	062-717-7213
(주)대원티.에스	일반 사무보조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23	062-373-1300
해피엔코신세계점	해피엔코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62-360-1247
제넥스화인	초중등 과학/수학 전담강사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10-2633-8990
(주)디엔에코	dcx 매장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2-6711-6775
(주)내산	건설회사 경리/회계 사무일 모집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2/30	062-385-153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백화점·할인점 납품 중소기업

## 70%가 "불공정거래 경험"

백화점이 할인점 등 대형 유통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대형 유통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8개사를 상대로 '대형 유통점 거래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70.4%가 '한번 이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한 업체들은 그 유형으로 '판매장려금이나 신상품 판매촉진비 부담'(28.9%)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답했고 '납품단가 인하 부담반납'은 27.6%였다.

기업들은 이밖에 '판촉사원 파견 및 특권행사 참석'(21.1%), '구권비나 광고·경품비 등 각종 비용 전가'(14.5%), '서면계약 미체결'(1.3%) 등의 불공정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은 84.2%가 '묵인한다'고 답했고 '거래 축소'(6.6%)나 '거래중단'(5.3%), '신고'(2.6%) 등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소수에 그쳤다.

연필뉴스

### "통장 휴친 뒤 비밀번호 알고 인출

## 은행에 책임 묻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통장과 도장을 휴친 사람이 통장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1일 자신의 집에서 통장과 도장을 도난당했으며 절도범은 같은 날 다방 종업원을 시켜 은행 창구에서 예금 2천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통장 주인인 자신은 50대 후반의 남성이고 예금 지급을 요청한 사람은 20대 여성의 다방 종업원으로 은행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다방 종업원이 통장 명의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따라서 은행이 부당 인출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금융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반면 은행에서는 예금 지급 청구서에 찍힌 도장과 통장에 찍혀 있는 도장이 일치하고 다방 종업원이 오류없이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점을 감안할 때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정당한 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로 볼 수 있어 보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통장 비밀번호로 집 전화번호의 뒤 네 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금융원은 이에 대해 다방 종업원이 A씨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민법과 법원 판례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데다 처음에 입력한 비밀번호가 신고돼 있는 비밀번호와 곧바로 일치한 점을 볼 때 은행이 다방 종업원을 예금주의 대리인 등 정당한 수령 권자가 아니라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연필뉴스

## 60나노 DDR2 모듈 개발

### 하이닉스반도체 '세계 최초'

하이닉스반도체는 세계 최초로 60나노급 1Gb DDR2 D램을 사용한 800MHz 메모리 모듈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10월 60나노급 D램을 개발해 인텔의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이를 이용한 60나노급 DDR2 모듈을 개발해 업계 최초로 인텔 인증과정을 AVL(Advanced Validation Lab) 테스트를 통과했다. 최종 인증결과는 내년 초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60나노급 DDR2 모듈 개발을 통해 최첨단 반도체 제조와 미세회로 공정에서 앞선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1Gb DDR2 모듈은 800MHz와 667MHz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두 종류로 개발됐으며, 기존의 80나노급보다 더욱 세밀한 6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져 생산성을 50%나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3차원 입체 트랜지스터'와 '3층 금속배선' 등 첨단기술이 사용돼 저장능력과 속도를 높였다.

'3차원 입체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누설전류를 줄여 데이터 저장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며, '3층 금속 배선' 기술은 칩의 금속배선층을 기존의 2층에서 3층으로 만들어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연필뉴스

### 부영 '양산 사랑으로' 530가구 임대분양

(주)부영은 광주시 북구 본촌동 일대에서 '양산 사랑으로' 아파트 530가구를 임대분양한다.

'사랑으로'는 지상 7~22층 8개동 규모로, 35평형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내년 1월로 오는 19일 청약을 받아 21일부터 계약한다. 모델하우스는 서구 농성동에 위치해 있다.

임대보증금은 9천800만원이며, 분양조건부 임대차 계약의 공급가격은 1억6천770만원으로 2년6개월 거주 후 공급 당시 가격으로 분양받는다. 입주 후 30개월 분양전환시까지 가구당 최고 8천5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최초 대출)해 준다. 문의 062-368-8322.

최경희기자 chae@kwangju.co.kr

### 로도복권 (제21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2   13   17   20   33   41	08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035,800,250	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9,528,750	29
3	5개 숫자 일치 1,319,828	1,308
4	4개 숫자 일치 53,295	64,785
5	3개 숫자 일치 5,000	1,080,600

### 팝콘복권 (제34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6조 507332
2	5억	6조 507331
		6조 507333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29573
5	1만	각조 526
6	2천	각조 51
		각조 29
7	1천	각조 5
		각조 9